

사 / 건 / 일 / 지

▼ 3월 19일 수요일 9시 50분경

- 연세대학교 내 백양로에서 성폭력 사건발생

▼ 3월 20일 목요일 오후 12시

- 총여학생회에서 성폭력 피해 학생으로부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듣게됨

▼ 3월 21일 금요일 밤 10시

- 가해자가 가해 과정에서 남긴 증거물인 의료원 직원 전용카드를 총여학생회에서 받음

▼ 3월 24일 월요일

- 총여학생회에서 성폭력상담실 전임 상담원과 만나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림
- 성폭력 상담실에 증거물인 의료원 카드가 분실된 카드인지, 카드 주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요청함

▼ 3월 26일 수요일

- 성폭력상담실 상담원이 의료원에 카드 주인 신원 확인 요청하였으나 총무과에서 공문처리해서 공식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
- 성폭력상담실에서 의료원 식당으로 카드 주인 신분 확인 요청하여 소속과 이름을 알아냄
- 가해자는 오후에 상담실에 연락해서 “그날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은 안나지만 상담실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을 보니 자신이 잘못된 것 같다. 피해자를 만나서 사죄할 방법을 찾고 싶다”는 얘기를 함
- 가해자가 사과문을 작성해서 성폭력상담실로 찾아옴. 상담실 상담원은 사과문을 한 부 복사해서 피해자에게 주기 위해 밀봉하며, 사과문 원본은 가해자에게 돌려줌

▼ 3월 27일 목요일

- 성폭력상담실 상담원, 총여학생회 회장, 사무국장, 피해자가 만나서 가해자 신원에 대해서 알게됨
- 총여학생회 학생회장, 사무국장, 피해자 단대인 간호대학교 4학년 학생 이상 3인으로 성폭력 사건 해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고,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사건 지원을 받기로 함.
- 비대위에서 피해자 진술서 제출 받음

▼ 3월 29일 토요일 21시 40분경

- 가해자로부터 총여학생회실로 전화가 옴. “자신이 가해자며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이에 아직 대책위의 공식 입장이 안나왔으며 빠른 시일 안에 연락을 주기로 하였음

▼ 4월 2일 가해자 면담 진행

- 총여학생회장 김한선혜, 사무국장 서변중성, 피해자 대리인 유시내씨,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지선 간사, 의료원 가해자가 참여하여 면담 진행 [1차 가해자 면담 녹취록]
가해자에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세 가지 요구안 제시.
- 가해자는 실명공개 사과와 성폭력 재교육 부분을 수용하며, 사직 요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줄 것을 부탁함

▼ 4월 7일 피해자 면담

- 요구안과 관련해서 피해자와 면담 진행
- 가해자 사직 요구안에 대해서 피해자 생활공간에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

▼ 4월 9일 가해자 2차 면담

- 1차 가해자 면담 녹취한 문서 사실 확인 받음
- 피해자 요구안 제시하고 가해자로부터 이행 약속 받음
- 피해자 요구안에 대해서 이행 각서 작성
- 실명공개사과 부분 논의함(가해자의 공개 사과문 작성과 게시 관련)

▼ 4월 10일 가해자 사과문

- 가해자 실명 공개 사과문 제출
- 비대위에 사과문을 본 결과 내용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가해자에게 재작성을 요청함

▼ 4월 15일 가해자 사과문

- 수정된 가해자 사과문 제출

공개 사과문

본인은 지난 3월 19일 밤 10시경 백양로에서 간호대 모 학생에게 음주 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통해 학생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사실을 인정하며, 제가 한 행동이 성폭력임을 인정하며 피해 여학생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피해 여학생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서 어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맹세하며, 앞으로는 제 자신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 자신의 인격 도야에 힘을 쓸 것을 맹세합니다.

2003년 4월 16일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김영인

▼ 4월 17일 의료원 총무과로 협조 공문 발송

- 의료원내에 가해자 실명공개 사과와 사건 공개문 부착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 4월 18일 의료원 총무과와 통화 16:40~17:10

의료원 총무과 직원(안병기 계장, 18-5825)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비대위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서, 의료원 방침 상 외부에서 의료원 내에 게시물을 부착할 수는 없으며, 의료원 소속 직원이 나 단체들의 경우 총무과에서 승인을 받은 후 부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비대위의 경우 외부 단체이기 때문에 방침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의료원 소속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성폭력 사건이 직장과는 관계없는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의료원 차원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병원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과문을 보고 병원 의사들에 전체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이 해결되고 가해자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점에서 가해자나 의료원 차원에서 성폭력 해결 노력을 보여준다는 점을 얘기하였으나, 병원 환자들이 가

질지도 모를 부정적인 선입견 문제 때문에 의료원 방침을 떠나서도 허가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료원에는 병원뿐만 아니라 의대, 간대, 치대도 소속되어 있는데, 의대나 간대의 경우 대학 쪽이고 학생 자치 활동 때문에 의료원에서 크게 관리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작성한 입장글과 가해자 사과문을 부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료원 입장과 관련해서 다음주 화요일인 22일까지 비대위에서 협조 요청한 공문에 대해서 '의료원 방침상 불가'한다는 공문을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 4월 23일

- 비대위의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해서 '외부 단체에 대해서는 불가한다'는 의료원 총무과의 공문을 받음
- 의료원 총무과 안병기 계장과 통화하여 환자들이 볼 수 있는 병원 공간이 아닌 의사 전용 공간과 가해자 근무 지역에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하였으나 이 요구안도 들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 4월 29일

- 연세대학교 학생복지처를 통해서 의료원측에 가해자 사과문과 사건 공개문 부착에 대해서 얘기해줄 것을 부탁함
- 의료원 내에 이번 성폭력 사건에 관한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 또한 직접적인 사건 공개가 아닌 의료원 소속 의사 및 직원에 대한 개인 메일 발송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음
- 비대위와 의료원과의 면담 자리를 학생처복지처를 통해서 요청함

▼ 4월 30일

- 비대위에서 의료원 총무과와 면담 진행(10:30~)